통일 칼럼

자칭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북한

정 복 규
논설위원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는 북한은 이번 중동 전쟁과 협상 과정을 단순한 남의 나라 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사 상황으로 가정하고, 고도의 정치·군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공격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핵이 없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우크라이나는 모두 공격을 받았지만, 핵이 있는 북한은 공격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미 핵무기를 손에 쥐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까지 얻은 북한이 과연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으려 하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는 매우 예측 불가능하다.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축출하려 했고 이란 지도부를 제거했으며, 쿠바에 대해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때로는 격분했다가 때로는 매우 우호적으로 대하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그것만으로도 자신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목적, 즉 '비물질적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히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은 것만으로 만족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현재 미국은 물론, 어쩌면 일본을 상대로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설령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다고 해도, 7년 전 '하노이 노딜'의 기억은 트라우마 두 지도자의 '준비 부족'과 '오판'이 문제였다.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두 정상 모두 각자 머릿속에 자신만의 특정 거래 안을 정해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핵화는 여전히 중요하고 미국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정책 목표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너무 많은 핵무기를 가졌기에 "비핵화를 당장 실현 가능한 '즉각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중간 단계로 현실적인 네 가지에 단기 목표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

첫째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 안보에 주는 위협을 낮추고 둘째,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갈등을 겪는 적들의 수를 줄여야 하며 셋째, 핵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마지막 넷째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유대를 어떻게든 약화시키는 것이다. 북한과의 '차가운 평화'를 수용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도 군사적 위협을 낮추고 오판으로 인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걸 의미한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제재에 이어 코로나가 닥쳤을 때 중국과의 국경을 3년 반 동안 스스로 걸어 잠갔다. 외부에서 가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보다 강력한 제재였겠지만 북한은 살아남았다.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고,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어떤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기존의 방식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정황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북 정책을 완전히 재설정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사 설

제58회 전북자치도 사진대전

2026년 제58회 전북특별자치도 사진대전이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2층 차오름 1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찰나를 붙잡아 진실을 기록하는 예술이다. 하지만 막상 사물의 깊이와 삶의 이치를 관통하는 사진 작품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한 장의 사진에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그 순간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다.

이번 사지대전에서도 우리 이웃의 소박한 일상에서부터 변화하는 시대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를 건넸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최우수상의 이정의 '다비식'은 만장기를 앞세운 추모객들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담아냈다. 대상으로 선정된 김승수의 '선'은 흑백사진 특유의 깊이 있는 표현 속에서 주제와 부제의 조화가 뛰어났다.

우수상 송구진의 '어느 처자의 초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또 다른 우수상인 차주선의 '축운'은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과 빛의 방향, 향 연기의 흐름까지 섬세하게 표현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특선 모삼순을 포함한 입상 11점과 입선 59점을 선정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사진대전이 지역 사진 문화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며 전북 사진 예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소중한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축구 비난 여론 확산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이 씁쓸히 돌아왔다. 홍 전 감독과 축구 대표팀 선수 8명은 6월 30일 오전 4시 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2회 연속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노렸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1승 2패, 승점 3으로 A조 3위에 그쳤다.

이어 조 3위 12개 팀 간 순위 경쟁에서도 10위로 밀려 32강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다. 이날 귀국장은 분위기가 험악했다.

취재진과 함께 일부 팬들이 새벽부터 공항을 찾아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이들은 홍명보 감독이 모습을 드러내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어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했다.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이들 가운데는 카메라를 들고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유튜버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하지만 팬들이 비난만 한 것은 아니다.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등 스타플레이어들을 보려고 공항을 찾은 일부 팬들은 선수들이 등장하자 박수를 치며 '힘내세요' 등의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보통 월드컵 본선을 마친 대표팀이 돌아올 때는 공항에서 별도 귀국 행사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행사가 없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대표팀이 공항 귀국 행사 없이 입국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공항에는 공항경찰단 및 기동대 소속 경찰관160명이 배치됐다. 남아공전 졸전과 조별리그 탈락 이후 홍 감독과 대표팀,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기자수첩

제10대 군산시의회 개원… '기대 반, 걱정 반'

김 만 호
지방부
군산주재

새롭게 출발하는 10대 군산시의회. 많은 변화를 가져 왔고 한편의 한숨과 한편의 환희가 같이 했던 6.3 지방선거를 치루고 난 후 군산의 변화는 이제 시작을 알렸다.

군산은 특히 기초의원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중 재선의 길을 걷는 의원도 있으며 격량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낙선한 그룹과 이번 선거를 통해 가슴에 새로운 뱃지를 달고 의정을 시작한 그룹도 있다.

먼저 뱃지 도전으로 초선의 길을 걷게 되는 의원들을 보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도 존재하며 앞으로 4년동안 군산시민들은 이들에게 날을 새울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재선의원들과초선의원들의 기대 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은 그저 기우(杞憂)가 되길 바란다.

현재 군산시의회의 인적 구성은 어떠한지 여기서 시의원의 임무를 상기하고자 한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위를 얻거나 타인에게 얻는 것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를 도입한 취지에 걸맞게 지방의원에게는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가지고 지방 자치단체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므로 건전한 지역발전이 될수있도록 하는 역활이 주어졌으나 하지만 많은 지방의원들 중 상당수가 감독의 의무를 저버리곤 하며 상당수의 국민들 사이 기초의원의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제도의 보완이나 폐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이를 극복하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당수 지역에서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며 기초의원들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역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의회에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지 별로 알리고 있지 않으며 지방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 저널을 비롯한 간행물과 지역 언론을 교차해 검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 만큼이나 관심을 갖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일일이 찾기도 힘들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언론들의 적극적이 견제와 감시는 물론 객관적인 활동에 대한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해당 지역 지역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줄서기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철저한 검증보다는 위원장의 자리에서 유리한 쪽으로 공천이라는 틀이 짜여지게 되어 있다.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 개인들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을 보고 투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지역위원장의 막강한 공천권이라는 것 때문에 공천이라는 행위는 철저한 검증과 개인의 사회적 도덕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폐단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대변보다는 당의 선거운동 등에 이용되는 경우 역시 다반사다.

이는 어느지역 또한 해당이 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해, 특히 이번 선거는 기대 보다는 실망이 더욱 크게 다가오며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역위원장이란 자리에서 불명예로 물러나며 자신의 재기를 위한 묻지마 공천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많은 시민은 이들의 전문성 또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당공천이라는 폐단 하에 이루어진 묻지마공천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기초의원들의 면면을 살피면 참 이해 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 하며 이들에게 공천이라는 선물을 내린 정당 관계자의 책임 역시 상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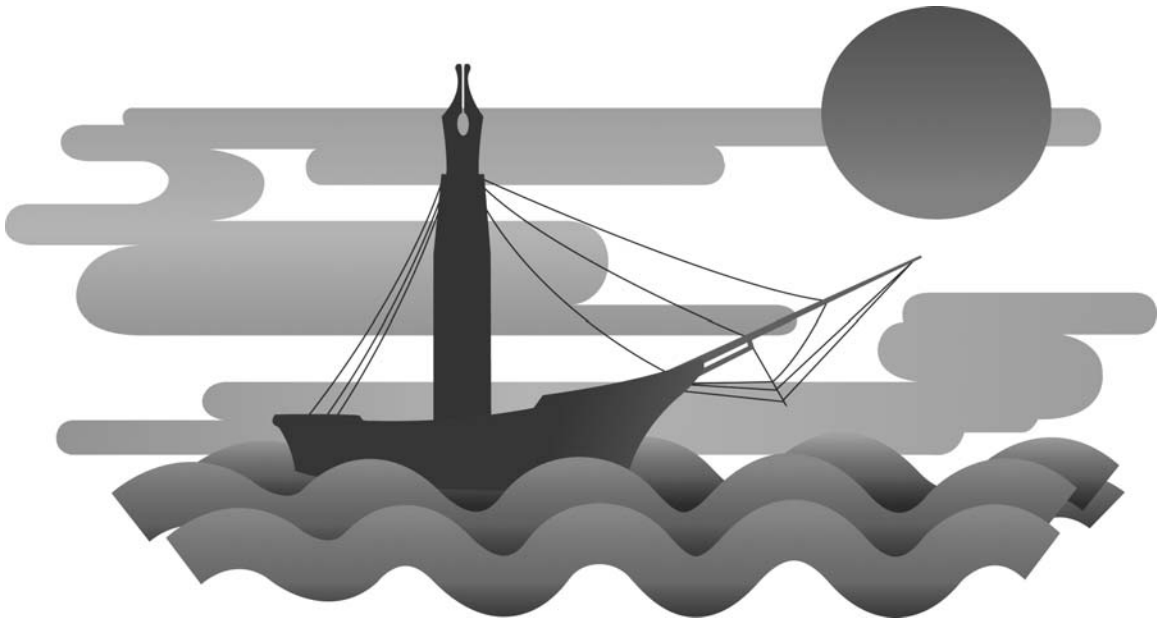
13일, 10대 개원일이다. 10대 기초의원 마음에 개인의 명예보다는 시민의 이익이 우선인 기초의회가 되어주길 바란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 전주매일